

# 광주FC 서울 원정길...승점 사냥 재시동

11일 목동종합 서울E와 승부  
역대 상대 전적 8승2무 '우위'  
압박·역습 초반 기선제압 유리

다시 상승세를 탄 광주FC가 서울 원정길에 오른다. 광주는 오는 11일 오후 7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랜드와 하나원큐 K리그 2 2022 26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아론, 엄지성의 득점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다. 무더위 속에서도 패기와 투혼,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만들어낸 승리였다. 이날 승점 50고지를 선점한 광주는 안정적인 선두 체제를 다시 굳힌 만큼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7일 기준 2위 대전하나시티즌(11승8무4패·승점 41)과는 승점 9점 차이며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대전이 경기를 하지 않아 광주로서는 승점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광주는 특히 지난 라운드 16개의 슈팅(유효슈팅 6개)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출신 수비수 아론은 전반 12분 이오펜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엄지성은 시즌 5호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후반 출격한 헤이스와 산드로는 비록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각각 3개와 4개의 결정적인 슈팅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줬다. 여기에 이견희, 허을 등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서울이랜드전 역시 광주만의 축구로 다득점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대 서울이랜드는 8위(4승11무7패·승점 23점)에 올라있다. 2019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정정용 감독과 함께 김선민, 김원식, 윤보상, 김인성 등 결출한 실력의 선수들이 즐비하다. 또한 리그 최소 실점에서 3위 광주(21실점)의 뒤를 이어 4위(23실점)에 자리하고 있다.



엄지성

하지만 광주는 서울이랜드와의 역대 전적 8승 2무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지난 5라운드 헤이스와 이견희의 활약으로 2-1로 승리했고 14라운드에서는 엄지성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두는 등 두 차례 맞대결에서 서울이랜드를 격파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서울이랜드는 최근 10경기에서 1승 6무 3패로 부침을 겪으며 팀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트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승점 확보에 유리할 전망이다. /조혜원 기자

대구 세징야·수원 이승우  
손흥민과 득점 대결 펼친다

13일 토트넘전 명단 발표

K리그 역대 최고 외국인 공격수로 꼽히는 브라질 출신 세징야(대구)와 최근 많은 득점 감각을 뽐내는 이승우(수원FC)가 세계 최고 골잡이로 우뚝 선 손흥민(토트넘)과 득점 대결을 펼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쿠판플레이 시리즈' 1차전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 친선 경기에 나설 팀 K리그 선수 24명의 명단을 7일 발표했다. 대구를 넘어 K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인정받는 세징야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2016년 국내 무대에 데뷔, 대구 한 팀에서 7년 7개월을 뛰며 73골이나 넣었다. 골키퍼에는 베테랑 김영광(성남)과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울산)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수비진에는 국가대표 김진수와 지난 시즌 K리그 최우수선수(MVP) 홍정호(이상 전북), 이기제와 볼투이스(이상 수원) 등이 선발됐다. 올 시즌 K리그에 데뷔해 경기력은 물론이고 '댄스 세리머니'로도 많은 화제를 모으는 공격수 이승우(수원FC)도 뽑혔다. <쿠판플레이 1차전 팀 K리그 명단> GK=김영광(성남) 조현우(울산) DF=김진수 홍정호(이상 전북) 이기제 볼투이스(이상 수원) 정태욱(대구) 김동민(인천) 김지수(성남) 박승욱(포항) MF=김대원 양현준(이상 강원) 팔로세비치 조영욱(이상 서울) 신진호(포항) 이승우(수원FC) 엄원상(울산) 권창훈(김천) 이명주(인천) 제르소(제주) FW=세징야(대구) 라스(수원FC) 주민규(제주) 조규성(김천) /연합뉴스

## 임성재, 스코틀랜드오픈 출전...시즌 2승 도전 상위랭커 선수들 총출동 '디펜딩 챔피언' 이민우도



임성재

남자 골프 세계 랭킹 23위 임성재(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DP월드투어(옛 유러피안프로골프투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총상금 800만 달러)에

서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8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의 르네상스 클럽(파 70·7,293야드)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에 출전한다. 2021-2022시즌 19개 대회에 출전한 임성재는 작년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을 포함해 톱10에만 6차례 오르며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임성재는 이번 대회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해 지난달 열린 메이저 대회 US오픈에서 컷 탈락한 아픔을 씻겠다는 각오다. 임성재 외에 이경훈(31)과 김주형(20), 김시우(27), 김비오(32), 이재경(23) 등 한국 선수들도 출전한다. 지난 5월 AT&T 바이런 넬슨에서 우승하며 한국 선수 최초로 PGA 투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이경훈도 이번 대회서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달 처음 출전한 US오픈에서 단독 23위에 오르며 PGA 투어 활약 가능성을 선보인 김주형은 이번 대회서 첫 톱10 진입을 노린다. 이번 시즌 23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톱 10 진입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김시우도



강성 칩샷

6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니컬러스빌의 킨 트레이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비버솔 챔피언십 프로암대회 8번그린에서 강성이 칩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 대회서 명예 회복에 나선다. '국내파' 김비오와 이재경도 모처럼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해 한국 골프의 저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대회서 연장 접전 끝에 토마스 데 트리(벨기에), 팻 피츠패트릭(잉글랜드) 등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호주 교포 이민우(24)도 출전해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오는 15일부터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을 앞두고 많은 상위 랭커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해 가량을 점거한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3위 온 램(스페인), 4위 콜린 모리카와, 5위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 6위 캐머런 스미스(호주), 7위 패트릭 캔틀레이(미국)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했다가 DP월드투어 출장 금지 징계를 받은 이언 폴터(잉글랜드)와 아드리안 오타에기(스페인), 저스틴 하딩(남아공) 등 3명은 대회 직전 영국 법원에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번 대회에 가까스로 출전하게 됐다. /연합뉴스

## 타격 반동 KIA 김도영, 사령탑의 생각은?

김종국 "스윙 자리 잡는 중"

"스윙이 올라오는 타이밍이다. 4-5월에는 터무니없는 스윙도 많았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지난 주말 SSG전에서 데뷔홈런을 신고한 신인 김도영(19)에 대한 김종국 KIA 감독의 말이다. 김 감독은 지난 5일 KT전에 앞서 "김도영의 스윙이 부진할때 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더 올라와야 한다"면서 "경기를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본인의 실력 보여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신인 1차 지명으로 호랑이 유니폼을 입은 김도영은 올 시즌을 앞두고 시범경기서 시범경기 통산 타율 1위 0.432(44타수 19안타 2홈런 5타점 3도루)으로 타격왕에 오르며 정규시즌 활약에 기대감을 높였다.



김도영

그러나 정작 정규시즌에선 부진했다. 개막전부터 선발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으나 5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하는 등 부진을 거듭하면서 4월 타율이 0.179까지 떨어졌다. 김도영은 4월 9일 SSG전에서 6경기만에 김광현을 상대로 뒤늦게 프로 첫 안타를 신고했다. 이후 선발과 교체선수를 오가며 경기에

나선 김도영은 지난달까지도 타율 0.201(134타수 27안타)에 그쳤다. 그러나 타격부진을 딛고 김도영이 조금씩 살아나는 점은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타석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긍정적이다. 지난달 26일 경기 전까지 54경기에서 39개의 삼진을 당하는 동안 6개의 볼넷을 얻는 데 그쳤던 김도영은 26일 이후 7경기에선 단 한 개의 삼진도 없이 3개의 볼넷을 얻어냈다. 7월 반등을 노리는 김도영이 KIA의 상위권 도약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혜원 기자

## '하루 쉬다 온' 최지만 보스턴전 4타수 1안타 1타점



최지만

하루를 쉬고 돌아온 최지만(31)이 타점과 득점을 생산하는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팀의 연승에 힘을 보탤다. 최지만은 7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 원정 경기에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경기에 결장한 뒤 이틀 만에 경기에 나선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283(191타수 54안타)이 됐다. 1회 1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2루수 땅볼을 쳤지만, 1루수의 포구 실책으로 출루했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선 결정적인 기회를 만든 뒤 득점까지 기록했다. 2사 1루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체인지업을 의도적으로 밀어쳐 유격수 옆으로 빠지는 중전 안타를 작성했다. 최지만은 후속 타자 라니 아로사레나의 좌익수 옆 2루타 때 전력 질주로 홈까지 들어와 팀의 세 번째 점수를 올렸다. 5회 선두 타자로 나서 삼진으로 물러난 최지만은 6회 2사 만루에서 보스턴의 일본인 불펜 투수 사와무라 히로카즈를 상대로 밀어내기 볼넷을 기록해 타점을 올렸다. 최지만은 8회 마지막 타석에선 잘 맞은 타구가 수비 시프트로 위치를 옮긴 2루수 쪽으로 굴러가 아웃됐다. 경기에선 1홈런 3타점으로 활약한 아로사레나를 앞세운 탬파베이 7-1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이틀 연속 보스턴을 꺾었다. /연합뉴스